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 개발*

이진효** 한국예술종합학교

본 연구는 무용영재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자신의 무용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기진단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2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연구방법은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무용영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고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및 판별방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영재성에 관한 5개의 개방형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무용재능이 뛰어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은 4가지 구성요인(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자신의 무용영재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기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에서 도출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자신의 무용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문항은 총 109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고, 무용재능이 뛰어난 무용전공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요인(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과 3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모형(4개의 구성요인과 36개의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설문조사 대상과는 다른 무용전공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는 4요인에 대한 36개의 문항으로 최종 채택하였다.

주요어 : 무용, 무용영재, 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 구성요인, 자기진단평가도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과연 누가 영재이며, 영재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하는 정의의 문제와 ‘어느 정도 이상을 영재라고 볼 것인가’하는 수준의 결정문제로 구분된다. 영재와 영재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영재의 기준과 영재성이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문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이에 따라 영재연구 역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영재에 관한 정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2012) 지원에 의해 연구된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 교신저자 : 2-jinhyo@hanmail.net

의이다. 그 이유는 영재의 정의가 곧 판별 및 선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본 연구에서의 무용영재성이란 무엇이며, 무용영재는 어떻게 판별되어야 하는가?

우선 무용영재 개념은 Renzulli의 평균이상의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집착력의 3가지 영재성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Renzulli는 영재성의 3가지 구성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영재성이 발현되고, 3가지 구성요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재로 보고 있다. 이를 무용영재에 적용한다면, 무용영재는 3가지 영재성과 더불어 무용이라는 예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능력(체격, 체력)까지 포함할 수 있다(이진호, 2011). 선행연구에서도 무용영재란, 춤을 잘 출 수 있는 타고난 능력 뿐 만 아니라 현재 춤을 잘 추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춤을 잘 출 수 있는 가능성 즉 '잠재되어 있는 뛰어난 무용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조건, 동작기술능력, 표현 및 창의성, 그리고 무용태도로 나누어 무용영재성을 설명하고 있다(이진호, 2010). 또한 무용재능은 무용을 잘하는데 필요한 잠재된 능력으로서, 무용교육을 통해 최상의 무용수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즉, 타고난 무용소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체격, 체력, 동작학습능력, 표현 및 창의성, 심리학적 특성이 상호작용할 때 무용영재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이진호, 2011). 그리고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2005)은 무용영재를 다른 것을 동시에 잘하면서 무용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또는 단순히 무용만 우수한 아이로써, 무용체격, 체력, 무용동작능력, 무용성향을 무용영재성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무용영재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무용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발 및 교육 대상자가 3가지 전공분야의 무용영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의 무용영재성 정의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화 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선행연구는 도출된 결과가 실제현장에 투입 및 적용되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무용영재의 대상을 3가지 전공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무용영재교육의 현황과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무용영재성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무용영재성이란 무용을 잘하는데 필요한 타고난 재능으로써, 잠재된 무용능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최상의 무용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특성이다.」

무용영재성 정의가 선결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용영재성을 어떻게 판별해야하는가에 대한 방법이다. 판별은 무용영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작업으로써, 판별의 최종목적은 영재가 누구인지 알아내려는 것보다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영재성을 한층 더 계발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김유선, 2007). 하지만 무용영재로서의 무용재능 또는 무용영재성은 초기에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무용영재로서 판별하기에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Frasier(1997)은 영재 선발에 있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특정한 영역에 우수한 학생이 판별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진호, 2011). 또한 Renzulli는 영재로써 측정되지 않는 어떤 특성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끊임없이 영재학생 판별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무용영재 선발의 다차원적인 판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 무용영재란 무엇이며, 잠재되어 있는 무용영재성을 어떻게 판별하고 평가해야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그 결과, 무용영재의 평가범주를 탐색하고 그 범주를 바탕으로 무용영재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교사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 또한 2011년 연구는 자녀의 무용재능을 탐지할 수 있는 무용재능 구성요인과 탐지도구를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특성을 통해 무용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모탐지도구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무용영재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 개발된 도구는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구만이 개발된 상황이라 무용영재 판별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교사와 부모평가 이외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Renzulli(1978)는 영재성 평가방법 중 자기평가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이 예술적 재능이나 창의성 혹은 과학적 재능을 직접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이다(Renzulli, 1987). 만일 어떤 학생이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교사나 부모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영재성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기진단방법은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평가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용영재는 조기에 선발된다는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어린학생이 자신의 무용재능을 구조화된 평가도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을 평가할 때 타당한 준거가 될 수 있는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해야 할 것이며 둘째, 그에 따라 자신의 무용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화된 자기진단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무용영재성 판별연구와 관련하여 교사평가도구와 부모탐지도구는 개발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용영재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기진단 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의 무용영재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무용영재성 구성요인 탐색 및 무용영재성 자기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무용영재 선발현장에 투입 및 적용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1단계: 개방형 설문조사의 연구대상

본 연구의 1단계 대상은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거나 현재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구체적인 특성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를 무용영재 전문가가 아닌 무용전공 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며 둘째, 무용을 잘 할 수 있었던 자신의 특성 및 무용을 잘하기 위한 조건 등을 실제 무용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100명에 포함된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여자 85명, 남자 15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8배 이상 표집되었고, 고등학생(49명)과 대학생(51명)의 비율은 거의 같게 표집되었지만 무용유형에서는 발레 전공자(52명)가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무용기간은 1~3년 8명, 4~6년 32명, 7~9년 50명으로 7~9년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수상경력은 1~2회 22명, 3~4회 45명, 5회 이상 33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단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학년	인원(명)	구성 비율(%)	총인원(명)	
개방형 설문대상	성별	여자	85	85	100
		남자	15	15	
	학년	고등학생	49	49	
		대학생	51	51	
	전공유형	한국무용	25	25	
		현대무용	23	23	
		발레	52	52	
	무용기간	1~3년	8	8	
		4~6년	32	32	
		7~9년	50	50	
		10년 이상	10	10	
	수상경력	1~2회	22	22	
		3~4회	45	45	
5회 이상		33	33		

(2) 2, 3 단계: 기초조사 및 본조사 연구대상

2, 3단계 기초조사 및 본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2단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학년	인원(명)		구성 비율(%)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성별	여자	229	182	91.6	91
	남자	21	18	8.4	9
학년	중학생	146	123	58.4	61.5
	고등학생	104	77	41.6	38.5
전공유형	한국무용	77	60	30.8	30
	현대무용	57	42	22.8	21
	발레	116	98	46.4	49
무용기간	1~3년	38	34	15.2	17
	4~6년	125	112	50	56
	7~9년	74	54	29.6	27
	10년 이상	13	13	5.2	6.5
총 인원		250	200	100	100

2단계 기초조사의 대상은 무용전공 중고등학생 총 250명으로서, 1단계의 연구대상자와 같은 조건이나 중복되지 않는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남자가 21명(8.4%), 여자가 229명(91.6%)으로 표집 되었으며, 전공유형에는 발레가 116명(46.4%)명, 무용기간은 4~6년이 125명(50%)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3단계 연구에서도 2단계 연구와 같은 조건으로 무용전공 중고등학생 총 200명이 편의표집으로 선정되어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고등학생(77명, 38.5%)보다는 중학생(123명, 61.5%)이 두 배 가량 많이 표집 되었으며, 전공유형에는 발레(98명, 49%), 무용기간에는 4~6년(112명, 56%)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연구도구

(1) 1단계: 개방형 설문조사와 귀납적 범주분석 및 예비문항 개발

1단계 조사도구는 개방형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질적 분석에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명과 무용영재 관련 전문가 5인이 논의한 후 만들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개방형 설문문항 세부내용

문항	개방형 설문문항 내용
문항 1	귀하는 선천적으로 뛰어난 자신의 어떤 요인(특성)을 보고 무용재능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문항 2	귀하는 선천적으로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갖추었습니까?
문항 3	귀하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무용을 잘하게 하는 자신만의 수행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4	귀하는 동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문항 5	귀하는 무용을 잘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어떤 성향(성격)을 갖추었습니까?

위의 표와 같이, 개방형 문항 개발은 무용영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삭제 후 무용영재성에 대한 적합한 문항들이 선별되었으며,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항들도 한 가지 의미로 통합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5개의 문항에 대하여 각각 최소 3개 이상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문항이 개방형 설문문항으로 완성되었다.

(2) 2단계: 기초조사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1차 기초조사와 2차 기초조사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무용영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표현 및 창의성' 9개 문항, '무용성향' 9개 문항, '신체조건' 9개 문항, '동작수행능력' 9개 문항인 총 4개의 요인으로 36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3) 3단계: 본조사

본 연구에서는 4요인 36개 문항들이 적합한 모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에 대한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모형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삭제된 문항은 연구결과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3. 연구절차

(1) 1단계: 개방형 설문조사와 귀납적 범주분석 및 예비문항 개발

이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개방형 설문을 기초로 하여 무용 영재성의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무용 영재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헌을 섭렵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10명의 전문가에 의해 여러 차례의 회의가 이루어진 후 개방형 설문문항이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문항을 선별하고자 무용재능이 뛰어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의 예비검사를 거친 후 문항이 완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개방형 설문지에 대해선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토록 요구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설문시간은 40분 정

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끝나면 즉석에서 무응답 문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바로 수거하였다.

(2) 2단계: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연구자는 조사 대상을 방문하여 응답 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완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3) 3단계: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신뢰도 계수가 산출되고 문항 수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0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문항이 채택되었다.

4. 자료분석

(1) 1단계: 귀납적 범주분석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자료에 대해 귀납적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로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 단어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하여 동일한 단어, 그리고 유사한 의미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1차 분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전문가 10인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153개의 원자료로 범주화하였으며, 빈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미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모든 문항의 결과를 세부영역과 일반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2차 분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타당성 있게 분류되었으며, 요인을 명명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 2단계: 기초조사

1차 기초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등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2차 기초조사에서는 무용인식의 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문항 내적일치도를 검증하고자 신뢰도 검사(Cronbach's α)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3) 3단계: 본조사

본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200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AMOS 7.0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1단계 :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 결과분석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자 5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무용영재성의 구성요인은 신체적 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조건은 총 401개의 응답이 있었으며, 26개의 원자료로 분류되었다. 신체조건 세부요인은 신체비율과 신체 형태, 체질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신체조건의 요인 중 신체비율($N=212$, 52.9%)이 가장 높은 반응 빈도를 보였으며, 타고난 신체 조건, 상, 하지 비율, 두상 크기의 3개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는 신체형태 요인($N=164$, 41%)으로 여기에는 마른체형과 발 외형, 고관절 가동범위, 다리형태 그리고 바른 척추의 5개의 중영역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나타났다. 체질 영역($N=25$, 6.2%)은 세부영역으로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또는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체조건에 대해 신체비율과 신체 형태로 나누었고(이진효, 2011), 조주현(2007)의 연구에서는 체격의 조건에 대해 발레 적합한 외양, 골격구조, 고관절, 어깨, 무릎, 척추, 발등구조, 근육 형태로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영재성 기준에 대한 공통된 특성으로 신체조건에 대한 요인이 포함되었다는데 신체성은 영재성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속성요인(오레지나, 2009)으로 볼 수 있듯이, 무용영재를 판별함에 있어 신체조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판별을 위한 신체조건의 기준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체질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이진효, 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영재의 체격조건은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무용영재 학생은 부모의 행동 및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는 무용영재 학생(자녀)과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습관들을 인지하고, 자녀특성을 무엇보다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무용영재성 기준은 곧 자녀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동작수행능력은 총 500개의 응답에서 39개의 원자료가 추출되었고, 이에 따라 9개의 중영역(동작 습득, 모방, 암기, 신체조절능력, 동작구성력, 공간구성력, 동작분석, 해석력, 동작탐구)과 3개의 일반영역(습득, 수행, 협응, 분석)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작의 습득과 모방, 암기를 포괄하는 습득($N=147$, 29.4%)이 반응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작유연성, 동작균형감, 동작지구력, 동작민첩성에 해당하는 수행($N=120$, 24%)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조절능력과 동작구성력, 공간구성력을 포함하는 협응($N=118$, 23.6%)은 그 다음 빈도를, 마지막으로 동작분석과 해석력, 동작탐구를 내하는 분석($N=115$, 23%) 영역 순으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을 잘하는 방법에 있어 무용동작의 재현능력을 언급하여(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2004),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시간, 공간, 힘의 요소에 근거한 신체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형태(Kraus & Chapman, 1991; 문영, 1996)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용을 잘 한다는 것은 의도된 동작으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정서 표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이진효, 2010). 본 연구에서도 무용을 잘하는 요인, 즉 습득, 수행, 협응, 분석이 동작수행능력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조경아, 2005; 이진효 2010)와 유사한 내용으로 범주화되어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의 주목해야 할 점은 동작수행능력에 포함된 체력이라는 하위요인인데, 체력은 기술적인 경기수행 시 요구되는 중심이동 및 평형성 유지와 스피드,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등으로 동작능력과 관련된 요인이며(김재호, 차광석, 1998), 무용유형별, 기술별 연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기수준을 효과적으로 변별해주는 요인(이진효, 2010)이기 때문에 동작수행 능력 요인에 체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주었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조건 안에 체격과 체력을 포함시키는 결과(이진효, 2010)가 있으므로 체력에 대한 범주영역은 추후 연구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명확한 무용영재성 기준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표현 및 창의성은 총 357개의 응답에서 22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6개의 중영역(감정표현, 동

작표현, 동작창의성, 동작다양성, 리듬감각, 음악해석)과 3개의 일반영역(표현성, 독창성, 음악성)으로 범주화되었다. 표현 및 창의성 요인에 대한 일반영역의 내용과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감정표현과 동작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성($N=142$, 39.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동작창의성과 다양성을 의미하는 독창성($N=126$, 35.3%), 리듬감각과 음악해설을 포함하는 음악성($N=89$, 24.9%)의 영역 순으로 범주화되어 나타났다. 표현성은 감정 표현과 감정을 동작으로 표현한다는 내용이 도출되었고, 독창성은 새롭거나 독특한 동작을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음악성은 타고난 리듬감각과 음악을 이해하는 감각 등을 포함하고 있다. Hawkins는 무용에서의 창의성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를 의미하며 감각적이고, 느끼고, 상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김화숙, 1996)이며, 무용은 움직임 요소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즉흥적 요소를 가지고, 개성적인 특성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창의적인 무용이 결정(오레지나, 2005)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의 무용영재 기관에서는 표현 및 창의성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로얄 발레 학교,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 아메리카 발레학교 등에서 음악성과 예술적 표현능력, 창의성 등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호, 2011).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무용영재 창의성 요인의 하위요인(조경아, 2005, 이진호, 2010)과 비슷한 결과를 밝혀냄으로써 무용영재의 판별에 있어 창의성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무용성향은 총 531개의 응답에서 30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9개의 중영역과 4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무용영재의 성향에 대한 일반영역의 내용과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흥미, 적극성(욕구)을 나타내는 열정($N=186$, 3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인내와 성취목표, 자기통제를 포함하는 끈기($N=155$, 29.2%), 몰입과 감정조절을 내포하는 집중($N=97$, 18.3%), 춤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 사고를 나타내는 자신감($N=93$, 17.5%)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용영재에 있어 과제집착성은 무용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무용성향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요인으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탐색의 성향을 의미하고 있다(김운진, 2004). 선행연구에서도 무용영재의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무용성향, 심리적 측면, 과제집착성 등의 요인명으로써 도출(오레지나 외, 2005, 이진호, 2010, 2011, 조경아, 2005 등)되었는데 무용성향은 일반 영재뿐만 아니라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장 고려해야할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영재는 대부분 조기에 판별되고 교육되기 때문에 학생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무용영재 양성에 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무용성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무용영재 판별 및 교육, 더 나아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적용되기 바라는 바이다.

2. 2단계 기초조사 결과 분석

1) 예비문항 구성

선행된 개방형 설문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무용영재성으로 예상되는 5개의 구성요인(무용영재성, 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이 확인되었으며, 각 구성요인에 포함된 하위 내용들의 원자료 반응을 토대로 138개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예비문항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된 후 80%의 동의하에 다시 119개의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최종적으로 L고등학교 국어 교사 한 명을 포함하여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미가 중복되어 다른 개념에 포함되거나 무용영재성의 개념 구조에 부적당한 문항으로 판단되는 10개의 문항을 제외한 109개의 문항이 <표 35>와 같이 확정되었다. 무용영재성을 위한 기초 질문은 신체조건 22개 문항, 동작수행능력 38개 문항, 표현 및 창의성 20개 문항, 무용성향 29개 문항으로 총 4개 요인에 대한 10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반응형태는 다중-문항척도형태의 등간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반응의 척도수는 많은 학자들(Jacoby & Martell, 1971; Lehmann & Hulbert, 1971)이 적절한 합수적 연산을 위해 제안했던 5단계 Likert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의 문장구성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한 10개 단어 내외로, 이중 부정문이나 수식어를 피하여 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4>는 무용영재성에 대한 109개의 예비문항이다.

표 4. 무용재능 탐지도구의 예비문항구성

일반영역	세부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신체조건	신체비율	1,2,12,21,34,47,48,57,63,64,72,74,81,88,89,93,96,97,101,105,107,108	22	
	신체형태			
동작수행능력	체질	3,4,5,6,10,14,15,16,22,23,29,30,35,36,37,42,49,50,51,52,58,59,60,61,65,66,67,75,76,77,82,90,94,95,98,99,102,106	38	
	습득			
	수행			
	협응			
표현 및 창의성	분석	7,8,9,17,24,25,31,38,39,43,53,54,68,73,78,83,87,91,100,103	20	
	표현성			
	독창성			
무용성향	음악성	11,13,18,19,20,26,27,28,32,33,40,41,44,45,46,55,56,62,69,70,71,79,80,84,88	29	
	열정			
	끈기			
	집중			
		자신감	5,86,92,104,109	
대상자 특성변인		성 / 연령 / 전공 / 무용경력 / 직업		

2) 기술통계 분석결과

표 5. 무용재능 탐지도구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요인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체적 조건	V1	3.74	1.224	-.385	.144	V74	3.08	1.560	.117	.144
	V2	3.58	1.239	-.219	.144	V81	3.55	1.293	-.221	.144
	V12	3.45	1.180	.073	.144	V88	3.44	1.532	-.007	.144
	V21	3.65	1.420	-.230	.144	V89	3.71	1.402	-.265	.145
	V34	2.99	1.387	.172	.144	V93	3.47	1.216	-.176	.144
	V47	3.55	1.320	-.270	.144	V96	4.01	1.266	-.437	.144
	V48	3.38	1.438	-.041	.144	V97	3.49	1.450	-.097	.144
	V57	3.59	1.280	-.227	.144	V101	3.58	1.472	-.119	.144
	V63	3.36	1.346	-.103	.144	V105	3.14	1.525	.031	.144
	V64	3.62	1.337	.111	.144	V107	3.72	1.360	-.231	.144
동작 수행 능력	V72	3.72	1.327	-.157	.144	V108	3.30	1.473	.034	.144
	V3	3.83	.996	-.108	.144	V52	3.72	1.228	-.166	.144
	V4	3.75	1.249	-.271	.144	V58	3.76	1.369	-.101	.144
	V5	3.85	1.058	-.154	.144	V59	3.60	1.263	-.070	.144
	V6	3.60	1.112	-.143	.144	V60	3.76	1.164	-.178	.144
	V10	3.89	1.027	-.212	.144	V61	3.97	1.238	-.242	.144
	V14	3.76	1.040	-.144	.144	V65	3.43	1.271	-.010	.144
	V15	3.78	1.105	-.240	.144	V66	3.66	1.209	-.049	.144
V16	3.65	1.120	-.176	.144	V67	3.72	1.178	-.090	.144	

요인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V22	3.80	1.132	-.091	.144	V75	3.77	1.387	-.246	.144
	V23	3.90	1.071	-.048	.144	V76	3.67	1.138	.082	.144
	V29	3.90	1.163	-.240	.144	V77	3.81	1.089	-.161	.144
	V30	4.16	1.011	-.006	.144	V82	4.56	1.047	-.389	.144
	V35	3.70	1.358	-.083	.144	V90	3.78	1.240	-.192	.144
	V36	3.94	1.162	-.147	.144	V94	3.55	1.170	-.130	.144
	V37	4.05	1.064	-.073	.144	V95	3.81	1.149	-.288	.144
	V42	3.99	1.108	-.003	.144	V98	3.70	1.134	-.239	.144
	V49	3.65	1.204	.100	.144	V99	3.70	1.090	-.289	.144
	V50	3.58	1.195	-.072	.144	V102	4.35	1.074	-.562	.144
표현 및 창의성	V51	3.65	1.206	-.136	.144	V106	4.27	1.189	-.440	.144
	V7	4.02	1.113	-.018	.144	V53	4.18	1.152	-.409	.144
	V8	3.59	1.072	.141	.144	V54	3.95	1.158	-.293	.144
	V9	3.81	1.117	.044	.144	V68	4.00	1.221	-.205	.144
	V17	3.75	1.053	-.081	.144	V73	4.47	1.086	-.347	.144
	V24	3.81	1.179	.094	.144	V78	4.24	1.135	-.261	.144
	V25	4.19	1.163	-.360	.144	V83	3.84	1.155	-.006	.144
	V31	3.98	1.068	-.139	.144	V87	3.96	1.159	-.020	.144
	V38	3.84	1.209	.036	.144	V91	3.76	1.337	-.001	.144
	V39	3.84	1.276	.104	.144	V100	3.92	1.141	-.112	.144
무용 성향	V43	4.00	1.173	.000	.144	V103	3.82	1.186	.000	.144
	V11	4.17	1.143	-.213	.144	V55	3.95	1.271	-.356	.144
	V13	3.76	1.122	-.159	.144	V56	4.42	1.216	-.553	.144
	V18	4.07	1.163	-.171	.144	V62	3.75	1.393	-.348	.144
	V19	4.09	1.082	-.156	.144	V69	4.91	1.138	-.893	.144
	V20	4.33	1.201	-.367	.144	V70	4.19	1.108	-.317	.144
	V26	4.42	1.281	-.463	.144	V71	4.41	1.244	-.572	.144
	V27	4.61	1.082	-.450	.144	V79	4.48	1.157	-.517	.144
	V28	4.46	1.147	-.298	.144	V80	4.51	1.042	-.234	.144
	V32	4.40	1.047	-.356	.144	V84	4.49	1.169	-.344	.144
	V33	4.24	1.191	-.426	.144	V85	5.08	1.060	-.792	.144
	V40	3.30	1.399	.032	.144	V86	4.43	1.164	-.467	.144
	V41	4.56	1.167	-.466	.144	V92	3.83	1.307	-.363	.144
	V44	4.59	1.165	-.599	.144	V104	4.49	1.129	-.607	.144
V45	4.50	1.157	-.513	.144	V104	4.49	1.129	-.607	.144	
V46	2.88	1.408	.290	.144						

분석 결과, 4개의 요인 모두 각 문항들의 평균이 1.5이하와 5.5이상인 문항은 없었고, 표준편차가 .10이하인 문항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첨도와 왜도 분석 결과, 20개의 문항 모두 왜도의 절대값은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은 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현 및 창의성' 요인 문항은 모든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다.

3)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는 구성요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측정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의미 있는 구조 추

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공통요인분석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미 설정된 4개 구성요인의 수렴-변별 타당성이 가장 높은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이 수반된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출된 문항의 구조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이진희, 2011).

탐색적 요인분석의 대상은 앞서 문항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도출된 22개의 문항이다. 요인분석 시 문항삭제 기준은 극단치로 간주될 수 있는 공유값(communality)이 .40이하인 문항,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주는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30이하인 문항, 변수가 한 요인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즉 다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문항(박현정, 2009)으로 설정하였으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총 세 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의 절대값이 .30이하인 문항과 공유값이 .40이하인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요인에 포함된 문항 중 설명력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부하량과 이론적 기준의 수준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해당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방법으로 무용영재성 요인에 대한 세 차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에 대한 36개의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무용영재성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최종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	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V91	.744	.073	.177	.023
V78	.727	.252	.239	.026
V7	.726	.167	.151	.133
V24	.723	.171	.024	.247
V38	.678	.203	.023	.299
V25	.667	.296	-.020	.194
V8	.595	.100	.082	.226
V43	.594	.174	.093	.294
V103	.437	.276	.256	.396
V109	.056	.766	.184	.126
V85	.116	.754	-.062	.019
V84	.093	.740	.173	.256
V26	.236	.735	.172	.149
V79	.314	.677	.157	.181
V27	.236	.655	.148	.237
V70	.201	.600	.220	.279
V33	.321	.591	.093	.270
V44	.317	.482	-.088	.286
V21	.134	-.015	.782	-.005
V81	.038	.079	.775	.247
V47	.055	.165	.769	.025
V1	.164	.043	.754	.060
V57	.088	.151	.658	.368
V72	.000	.109	.633	.184
V74	.034	.096	.623	.140
V96	.229	.063	.507	.092
V101	.076	.118	.498	.179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	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V50	.176	.127	.116	.739
V98	.236	.168	.187	.715
V6	.259	.060	.157	.678
V67	.256	.230	.193	.660
V51	.210	.186	.201	.647
V61	.030	.267	.125	.637
V36	.242	.131	.053	.526
V95	.438	.163	.308	.463
V75	.020	.228	.200	.455
고유값	5.045	4.842	4.807	4.694
분산비율(%)	14.013	13.449	13.352	13.039
누적분산비율	14.013	27.461	40.813	53.852
신뢰도 (Cronbach α)	.889	.896	.866	.867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정= .9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5343.689, $df=630$, $Sig=.000$

2. 3단계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요인과 그에 속한 36개 문항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 기준에 의해 분석하였다.

4개 요인 36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초적합도지수(GF)는 .792, 비표준 부합치(TL)는 .916, 비교 적합도지수(CF)는 .921로 나타났고, 이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소 간 평균차이(RMR)는 원소 간 평균차이를 보는 것으로 .50이하의 기준일 때 높은 적합도 현상이 나타나며, 36개 문항의 원소 간 평균차이(RMR)는 .032로 도출되어 적합한 모델로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간 평균차이($RMSEA$)의 값은 .048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델의 적합도가 성립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4요인 36문항의 요인구조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4요인 36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Q(x^2 / df)$	RMR	CFI
36문항	1.363	.032	.921
결과	적합	적합	적합
모형	TLI	GFI	$RMSEA$
36문항	.916	.792	.048
결과	적합	적합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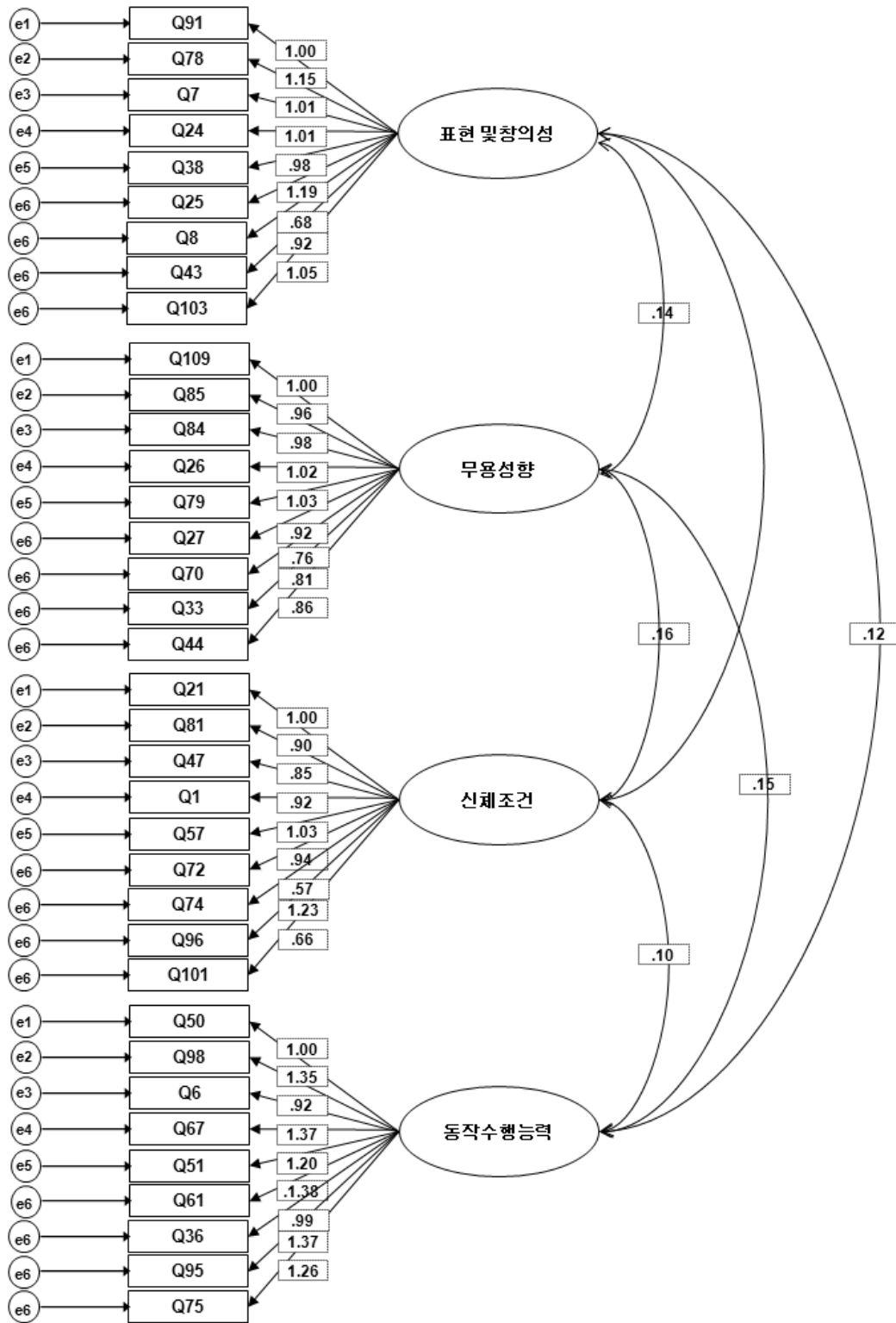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36문항의 요인구조모형

따라서 확정된 무용영재성 자기진단도구 문항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및 창의성' 9개 문항, '무용성향' 9문항 '신체조건' 9문항, '동작수행능력' 9문항의 총 4개의 요인 36개 문항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 8. 무용영재 구성요인별 평가별 문항(최종형)

요인	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요인 1	표현 및 창의성	V91	나는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936
		V78	나는 나의 감정을 얼굴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	.934
		V7	나는 풍부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춤을 춘다	.935
		V24	나는 즉흥적인 표현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935
		V38	나는 무용동작을 창작하는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935
		V25	나는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춤 동작이 나온다	.935
		V8	나는 내가 표현하는 동작이 남들에 비해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936
		V43	나는 모든 소재(주제, 도구, 음악 등)를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935
		V103	나는 표정 및 손동작 등 세심한 부분까지 잘 표현할 수 있다	.934
요인 2	무용성향	V109	나는 무용(동작) 배우러 가는 것이 즐겁다	.935
		V85	나는 무용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936
		V84	나는 춤추는 것이 힘들어도 춤추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934
		V26	나는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하다	.934
		V79	나는 무용에 대한 나만의 목표를 갖고 꾸준히 실천한다	.934
		V27	나는 무용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한다	.934
		V70	나는 안 되는 동작이 있으면 될 때까지 연습한다	.934
		V33	나는 춤을 출 때 완전히 빠져든다	.934
		V44	나는 새로운 무용동작을 도전해 보고 싶어 한다	.936
요인 3	신체조건	V21	나는 팔, 다리가 길다	.936
		V81	나는 신체 라인이 예쁘다	.935
		V47	나는 무용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다	.936
		V1	나는 신체(머리-팔-다리 등)비율이 조화롭다	.936
		V57	나는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다	.934
		V72	나는 얼굴크기가 작다	.936
		V74	나는 체질상 살이 찌지 않는다	.937
		V96	나는 상체보다 하체가 길다	.936
		V101	나는 뼈대가 얇다	.937
요인 4	동작 수행 능력	V50	나는 한 동작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지구력이 뛰어나다	.935
		V98	나는 처음 보는 동작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934
		V6	나는 어려운 동작이라도 금방 배운다	.935
		V67	나는 동작을 정확하게 한다	.934
		V51	나는 연속 동작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다	.934
		V61	나는 동작 순서에 대한 기억력이 좋다	.935
		V36	나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936
		V95	나는 팔 다리, 시선 등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	.934
		V75	나는 스트레칭을 잘 한다	.93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영재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무용영재 스스로가 자신의 무용영재성을 평가 할 수 있는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무용영재성 자기진단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무용재능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고자 개방형 설문지를 개발하고,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용영재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2차례의 설문조사와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등을 거쳐 최종 무용영재성 자기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무용영재성 조작적 정의는 무용을 잘하는데 필요한 타고난 재능으로써 잠재된 능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최상의 무용수행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조건』, 『동작수행능력』, 『표현 및 창의성』, 『무용성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무용재능 탐지도구는 총 4개의 구성요인과 36개의 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신체조건』 문항 9개, 『동작수행능력』 문항 9개, 『표현 및 창의성』 문항 9개, 마지막으로 『무용성향』 문항 9개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영재성 자기진단도구의 4개의 구성요인과 36개의 문항에 대한 구조는 통계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델에 대한 적합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무용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는 기관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선발 후, 무용영재 교육을 통해 학습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평가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 선발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무용영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무용재능을 판별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고, 2010년은 교사가 무용영재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 2011년에는 자녀의 무용재능을 탐지할 수 있는 부모관찰도구가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교사-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영재성 평가방법이 모색된 상황에서 추후 연구는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의 각 요인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재성 판별 중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무용창의성은 무엇이며, 무용창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객관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양적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무용영재성 판별은 양적설문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판별한다면, 한 학생에 대한 무용재능을 다차원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질적 평가방법의 중요성을 모색하고, 보다 타당한 질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질적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양적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방법의 교차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타당하고 신뢰가 높은 무용영재성 판별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무용영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무용영재의 범위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완벽한 신체조건 및 동작수행능력 등을 갖추어야 무용영재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무용영재 교육은 뛰어난 무용수 양성 뿐 만 아니라 안무가, 무용비평가, 무대미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을 이끌어내어야 할 목적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무용영재 선발 및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인재양성을 고려하여 무용영재성 정의 및 구성요인 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기웅,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2004). 무용영재판별도구 개발연구 I. 미간행.
- 김유선(2007). 논술영재 판별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진(2004). 무용성격의 본질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호, 차광석(1998). 전공별 무용수의 신체구성 및 체력특성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7**, 348-359.
- 김화숙(1996). 안무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6집, 7-26.
- 문영(1996). 무용수의 기술수준별 발레동작의 인지적 및 운동적 회상능력. 대한무용학회, **19**, 191-203.
- 오레지나(2005).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레지나, 문영, 김윤진, 안문경, 김기웅(2005). 무용영재성의 요인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4(4)**, 745-752..
- 오레지나(2009). 무용영재 판별을 위한 실기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 1-15.
- 유진, 조경아(2006). 무용수행의 재능발달 요인: 수준별 탐색.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17**, 4, 29-42.
- 이진호(2010). 무용영재 평가범주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호(2011). 자녀의 무용재능 탐지도구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이진호, 이진희, 박현정(2011). 무용영재성 구성요인에 관한 경험적 탐색. 한국무용기록학회, **23**, 83-100.
- 조경아(2005). 무용재능 지도자 평가의 구조 타당화.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2003). 발레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연구. 미간행. 한국 교육개발원.
- 조주현(2007). 발레 영재성 구성요인의 탐색연구.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2007**, 제 **18**권, 제 1호, 15-31.
- 한국교육개발원(2000).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II) : 사회과 영재교육과정 시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Renzulli, J. S.(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of definition. *Phi Delta Kappan*. November 1978, **60**, 180-184, 261.
- Renzulli, J. S. (1987). *The triad/revolving door model*. Workshop presented in Madison. Wisconsin.
- Kraus, R., & Chapman, S.(1991). *History of the dance in art and educatio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for Self-Evaluation Tools to of Dance Giftedness*Lee, Jin-Hy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which can observe children's dance talent. The first step, open-ended survey was conducted to 100 dance major students. The analysis of survey responses derived the 4 constructing factors (physique state, expressiveness and movement ability, creativity, physical strength). The second step, the basic survey with 250 questions was carried out to 200 dance major stu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es) 36 questions according to the 4 constructing factors was derived. The third step, the survey was conducted to 150 parents in order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36 questions in accordance with 4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36 questions in accordance with 4 factors were appropriate.

Key words : Dance, Gifted in Dance, physique state, expressiveness and creativity, movement ability, physical strength, Self-Evaluation, constructing factor, Children for Self-Evaluation tools

논문투고일: 2017. 09. 04

논문심사일: 2017. 10. 06

심사완료일: 2017. 10. 17